

26. 주님을 친밀하게 알기 위한 요소

히브리서 3장 7~11, 18~19 "7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퍽케 하지 말라 9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18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은 주님을 친밀하게 알기 위한 요소를 네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네 가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과 더 친밀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전환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이 부분이 첫단추 같습니다. 이 부분이 되어야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실제적인 전환이 삶에서 이루어져야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이처럼 주님을 아는데 필수인데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모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대조하여 보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며 그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기 9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저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기적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은 그 하나 하나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사건을 통해 낮에는 저들을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침에 이슬이 내려 그 이슬이 굳어서 만나가 되어서 그 만나를 먹고 사는 사건,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200만 명이나 물을 먹는 사건, 쓴 물이 달아지는 사건, 사실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기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신발이 달치지 않았고, 의복이 헤지지 않았습니니다. 40년 동안 기적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실 창세 이후로 오늘까지 예수님 주위에 살았던 그 제자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처럼 많이, 이처럼 장기간에 경험한 사람은 없다고 해도 가언이 안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은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근심하게 했다는 말은 부드럽게 말한 말이고 사실대로 말하면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17절을 보십시오. "15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17 또 하나님이 사십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여기에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저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분노를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사실 저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분노를 활활 태우고 계신 것을 알면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몰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홍해 사건을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므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으로 저들을 하나님이 건져 내셨습니다. 사실 보세가 그들을 찾아와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낸다고 말할 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 대국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 내려면 엄청난 군사력이 필요할 텐데 기껏 해봐야 낡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와서 건져낸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라고 기대했다고 이내 그것 때문에 일이 더 어려워졌지요. 바로가 일을 더 심하게 시켰으니까, 그리고 원만하고 불평하면서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기적을, 10가지나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드디어 바로가 두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반신반의 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놀랐을 것이요.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자기들이 해방되는구나, 그 엄청난 종살이에서 해방되는구나,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니 기대가 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게 어디냐면 홍해입니다. 홍해까지 왔는데, 앞에는 바다인데, 이제 애굽 군대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정예부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잖아요. 꿈쩍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바다를 건널 길이 없죠.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들과 싸울 능력은 더욱더 없습니까, 저들은 애굽의 최정예부대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오 하나님 왜 우리 여기 데려 왔습니까?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데려다가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200만명이나 되는 아이들까지 합하면 그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바람이 세계 불어 오더니 바다가 양쪽으로 짝 갈라지고 서 버렸습니다. 수족관에 가면 바다가 서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수족관엔 우리가 버티고나 있지, 이것은 우리도 없는데 바다가 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바다 바닥은 바람이 세계 불어서 굳은 땅처럼 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 가라는 것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믿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것은 정신 차릴 틈도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야지.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애굽 백성들이 쳐들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바퀴가 빠지게 하고 저들을 혼란 시켜서 못 따라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건너왔는데 저들이 점점 쫓아 오니까 얼마나 또 두렵습니까? 에이 큰일났다 이거, 큰

일났다 그리고 있는 사이에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물이 싹 합해져 버리니까 그 군대들이 다 몰살을 당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놀랍게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놀랍게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한, 하나님을 분노케 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성경은 그 사건을 두고 저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고 말하는데요. 뭘 두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환경이 어렵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지 아니하고 환경에만 토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연고로 성경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입자에서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사실을 이만큼이라도 알았다면 요.

또 지나갑니다. 갔더니 이번에는 물이 있는데,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합니다. 아 그래 홍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하필이면 그럼 어떻게 뭘 마시고 살란 말이나, 왜 하필이면 하나님 우리를 이런 척박한 사막으로 인도한단 말이나,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사실 자기들 생각해 볼 때에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안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상황에 닥치면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노가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를 보여 주시고 그 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갑자기 변하여 단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생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이러한 일도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에 그들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이 되어 질 때 하나님을 신뢰했다,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한 줄을 알았을까요? 이만큼도 몰랐겠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뭘니까? 먹을 게 떨어진 사건입니다. 사막을 가는 데,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 동안 애굽에서 가져온 것을 먹었는데, 200만명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막에 돌 뿐인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없는데, 땅도 없고 물고 없고 시간도 없는데,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애굽으로 돌아 갈 길도 없어요. 홍해가 다시 합해져 버렸기 때문에, 사막에 갇혀서 완전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거기서 떡 반죽 그릇 옆에서 살았는데, 모세야 우리가 그러지 않더냐, 거기 내버려 두라고 그러지 않더냐,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 데려다가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일을 일으키시는데,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 보라고 그러니까 이슬이 내려 가지고 굳었는데, 그게 알갱이처럼 만나가 된 것입니다.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만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래 처음에는 그 동안 못 먹다가 이제 없으면 싫어서 잔뜩 모아 났더니, 모세를 통해서 하루치만 모으라고 그랬는데, 하루치가 어딴어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해. 내린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래서 잔뜩 모아 뒀는데 그 다음날 해가 뜨니까 그게 구더기로 변해버렸잖아요. 갖다 버려 버리고, 야 이거 하루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안식일이 다가 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안식일날은 내리지 않을 것이니까 그날을 이틀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또 해놓고 구더기 생기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하루치만 따게 했는데, 그 다음날 여지 없이 내리지 않아서 쫄쫄 굶어야 했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노가 활활 타오

르게 했다, 분노케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분노케 했느냐? 이유가 있는데,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들이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느냐,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의중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몰라요.

무슨 말이나고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심은 저들을 시험하기 위함” 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합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부 예배 시간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피 보면서 영적인 표징들에 살피 봤어요. 영적인 표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능력으로 나타낸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되 일찍 선상에서 인도하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나타나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할 때는 아브라함 때에 하셨던 것을 계속해서 하시거든요. 야곱에게 할 때는 그 전부터, 모세에게 하실 때에는 그 전부터 이루신 일을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인이건 교회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아니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일찍 선상에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보이신다고요. 좀 복잡하죠.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어요. 그저 제가 밥벌이 할 게 없으니까 뭐해서 밥 먹고 살까 생각하다가, 아 교회를 세워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시다. 아니면 목사 외에는 할 게 뭐 있나, 교회를 한 번 성장시켜서 빨리 성장함으로 세상에 좀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자로 알려져야지, 그래서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포도나무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왔습시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습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세우시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건,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실을 보이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표징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쭉 연결해 보면 뭘 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포도나무교회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아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하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밤 10시 타임 중보기도를 인도하거든요.

어제 저녁에 중보기도 인도하고 와서 아침인가 새벽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팀들에게.

그러면서 뭘 위해 기도하라 그랬냐 하면,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다가오는 빛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대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엔가 또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주님을 구하라고 그러냐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있으니까 주님을 구하라고 그러냐고. 그러한 말씀을 주신다고 그래요.

제가 1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한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표징들을 오늘 살펴볼 차례인데, 그 표징들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면서 어제 주었던 감동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표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회를 세우시는 시점부터 오늘까지, 아니면 그 전부터 더 하나님이 해 오신 일들을 중요한 표징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같이 나눠야겠다.

뭐하기 위해서?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가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분별할 수 있겠다.

이걸 분별해야 우리가 지체로써 그 하나님의 향하심에 동참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준비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침이 1부 예배를 인도하려고 딱 앞에 섰는데요, 저에게 어떠한 것이 느껴지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삶이 살면서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도 그 목적을 못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못 봤어요. 하나님 뭐라하고 계신지. 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 가운데 추구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 옛날 말로 들립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요, 포도나무교회 지체라! 여러분 그냥 성도로써 등록했으니까 ‘포도나무교회 다닙니다’ 그러라고 포도나무교회 지체가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러분 포도나무교회 지체 삼으신 거 아닙니다.

주일 날 예배시간 되었으니까 여기 자리 채우고 앉아 있으라고 포도나무교회 지체 된 것 아닙니다.

아니면 와서 그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보니까 마음이 갈급한데, 와서 설교 말씀 듣고 마음에 위로 받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포도나무교회 지체 삼으신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이를테면 포도나무교회면 포도나무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여태까지 행해오신 바가 있고, 지금 행하시는 바가 있고, 앞으로는 인도해 가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를 주시하여 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거기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 가를 지체로써 발견하고,
손가락이면 손가락 눈이면 눈 입이면 입으로써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자기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마음껏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례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중에서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 빼놓고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
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몰랐어요. 하나
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지난주에 광주에서 치유세미나 했잖아요. 이길수 목사님 중심으
로 해서.

제가 대전에 지난주에 정기 집회를 다녀왔어요. 대전도 종종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다녀왔는데, 거기 다녀온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분은 훈련원의 한 분이니까 다 아는 내용 설교 하시는 거고, 다 그 전에 들었던 얘기지만, 근데
다르더라고요.

설교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이 다르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다른데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목적
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목적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깐요.

두 번째, 왜 저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밖에 없었는가? 분노케 할 수밖에 없었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예요.

여기 보시면, 믿음이 없는 것을 12절 “믿지 아니하는 악심” 이라고 그랬고요, 시편 78편과 106편
에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거역했다, 배반했다. 하나님의 노가 활활 타오르
게 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믿음이 없는 게 또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의 삶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삶에서는 믿음 있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 믿음 있는 게 가능하지 않냐 하면,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분을 내 전존재로 신뢰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이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질적으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아까 홍해 사건!

여러분, 200만 명. 다시 말하면, 개인으로 말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들, 자기 부모 모두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봐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굴러 봐도 살아날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길이 안 보이는데!

우리는 그거에 1/10, 1/20만 되도요, 사실 목숨은 아니라도 우리 사업에 때로는 위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가 닥치거나, 개인의 삶의 어려움이 닥치거나, 목숨이 위태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려움만 닥쳐도 우리는 이들과 똑같이 하는데,

이들은 전체가 다 몰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쳤는데, 길이 없을 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신뢰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으면,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핵심은 저들이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있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랬는가? 여기 해답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을 보시죠. 7절 “그 행위를 모세에게” 여기에서 행위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번역해야 옳다고 그랬어요. 새로 번역한 성경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영어성경도 다 그렇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 여기보세요. 이스라엘백성들이 40년 동안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행사를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그런데 시편 103편에 보면 왜 하나님의 길을 몰랐죠? 간단합니다.

저들에겐 하나님의 길이 뭐하지 않았으니까? 계시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길이 계시되지 않았으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계시하셨으니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데 모세에게는 뭘 계시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모세에게는 길을 계시하시고, 왜 이스라엘백성들에게는 길을 계시하지 않으셨는가? 왜 저들에게 하나님의 행사만을 계시하셨는가? 간단합니다. 여기 답변을 보시면 알아요. 출애굽기 33장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 모세가 뭘 구했어요? ‘주의 길을’ 그러면 이제 선명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행사를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사를 계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구한 건 하나님의 행사뿐이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서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습니다. 흥해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부르짖었을지는 모르지만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구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구했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고기를 구했고,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게 뭐냐? 자기들의 삶에서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한 것을 주셨다. 시편106편에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소멸하는 병 다시 말하면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106편을 한번 보시죠. 13절 “저희가 미구에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 찌라도” (13-15a) 보세요. 40년 동안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파괴하게 하셨도다. 그 영이 죽어갔다 그 말입니다. 영어성경에 보면 "a wasting disease" 소멸하는 병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이러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되 자기의 삶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겁니다. 자식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 마음의 평안, 보다 더 좋은 집과 좋은 차,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은 구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한 것을 주셨다. 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행사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고 심각한 게 뭐냐? 저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흠으십니다. 광야에서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냐? 여기 모세를 보면 압니다. 아까 읽은 출애굽기 33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13절 “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

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절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쫓아내고 너희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1-3)

33절 그 아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15절 “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시내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이 나서 받은 십계명 다 집어 던지고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내게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인 들이 나오니까 너희들이 다니면서 닦치는 대로 죽여라 그래서 그날 3천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던 후에 여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이스라엘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땅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 땅은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나하면 하나님이 천사, 사자들을 앞서 보내어 그들이 그 족속과 싸움으로 그들을 내어 쫓아서 이스라엘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 그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안 가지겠데요.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안가지겠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백성들의 경우에는요.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이면 됐어요. 뭐예요? 치유면 치유, 능력이면 능력, 도움이면 도움,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면 역사, 지금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다는 거 아니예요? 저들이 지금 광야에서 생활한지가 2년이 됐거든요. 이 시점까지. 날마다 먹는 게 만나였어요. 아침/점심/저녁/날마다 그들은 야채 한번 못 먹어 봤고요. 과일 한번 못 먹어 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샤워 한번 못해 보고요. 그동안 물은 반석이 터져서 먹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주겠다고요.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을 주겠다고요. 얼마나 풍성하냐하면 정탐꾼을 보냈을 때 보시면 알지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매고 올 정도로 풍성했어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요.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천사들이 앞서 싸움으로써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요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던 것이 그건데. ‘할렐루야 아멘 주시옵소서. 우리를 야! 이렇게 사랑하시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에게는요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엄청난 축복,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도 하나님 그분보다 전혀 소중하지 않았습니니다. 모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능력이나 축복이나 역사도 모세에게는 요만큼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나 생각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삶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치유, 능

력, 먹을 것, 마실 것, 성공, 그들은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처하면 세상 온 우주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요만큼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실, 자기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대답을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려거든 우릴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세요. 저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게 아니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한게 아니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필요한게 아니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려거든 사막인 여기에 우리를 두세요. 우리를 거기에 올려 보내지 마세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목적과 의도와 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기들의 삶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할 따름입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사업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난관에 처했을 때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병들고 아플 때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방황할 때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지는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는 모세가 가졌던 자세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여태까지 무슨 일을 해 오셨으며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며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명히 보고 그렇게 동참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주일날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와 관점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자신의 삶을 드러 동참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환경의 어려움이 닥치면 여지없이 그 앞에 무너지죠. 환경이 어려우니까 무너진게 아니라 실제로는 전혀 신앙이 없었는데 환경이 어려워 짐을 통해 드러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없으면요 주님과 친밀한 사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전체도 마찬가지로, 내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사 표징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보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가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주님과 친밀한 사귄에 역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귄의 history를 개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무슨 말이냐구요?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의의 행실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곧 내 일이기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내 삶을 드리되 네 가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로 만족이요 족한, 왜냐하면 아버지의 일이 곧 내 일이기엔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행하심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은밀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행하심에 동참하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되, 여기 보시면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헌금, 구제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하나님께 드리는) 저는 여기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가져야 할 은밀한 사귀는 역사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는데 첫째는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기도와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기 위해 주 앞에 서는,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중과 의도가 무엇이며 예수님의 행하심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 원하며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하여 주 앞에 서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을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번 한동대 집회에 갔더니 한 자매가 와서 그러더라고요.(지난번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예수 믿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말해 주기를 “사랑은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 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사랑이 안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분을 찾고, 그분 앞에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알기 원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구하여, 기도와 성경을 통해, 은밀하게, 주님 자신을 구하여, 주 앞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어떤 때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치유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으려고 몰려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내려 두고 한적한 곳에 가서서 하나님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의 데이트(date)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 은밀한 만남의 데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므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끈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자체가 영적으로 문제라고 하니까 우리의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돼 구하는 것이 그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들의 삶을 위한 도움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를 위한 도움과 능력을 주는 수단엔 불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해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할 자리가 있다 할 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은밀한 사귄의 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나?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 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라고 합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가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당연히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를 구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고, 곧 아버지의 관심이 내 관심이고, 아버지의 의중에 있는 것이 내 의중에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추구하는 바를 내가 추구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바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바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 되는 것이기에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과 그 의중과 주님의 의도하심과 계획하신 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의 데이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은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사업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집 아이들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빚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앞으로 잘 트이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내 사업문제, 직장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직장 취직하게 해주시겠지, 이번에 우리 아들 좋은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이러한 끈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자도 있지만 그 끈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아버지의 일이 곧 내 일이기에 아버지의 뜻과 의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 앞에 서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주 앞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게 해서가 아니라, 물론 같이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서로 모르게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중심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대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기에, 아버지의 일에, 은밀하게 내가 동참하듯 은밀하게 중보기도로 아버지의 의중들이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서는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을 여러분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심을 보여주시는 시간이 언제냐? 중보기도하고, 찬양과 경배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 구제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알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 가운데 한 분이 살면서 2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잘 아는 사이라도 아닌데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랬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마태복음 6장 3절을 주셔서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아까 읽은 그 구절입니다. “너는 구제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전혀 그런 기도의 경험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뚜렷하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라고 그러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 나중에 식구들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감동을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배우자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기도하면서 저에게 10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는 못하지만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를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목적에 우리의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끈 달린 것이 아니고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이 내 목적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에, 내 삶에서 나에게 소중한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과 구제를 통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은밀한 데이트의 만남, 그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없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까?

그것은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돈 주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아버지의 의중과 의도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았을 때, 하나님 행하심을 보았을 때, 그것이 자기의 일이기, 그것이 내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그 아버지의 일이 내가 은밀하게 내 삶을 드러 물질을 드러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데이트의 삶을 통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삶으로 전환 없이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이며, 목표의 나의 목적이니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내 삶을 드리는 것인데,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은밀한, 비밀한, 데이트 역사를 갖는 것인데 시간을 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물질을 드러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집니다. 자라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경배를 통해 더 배양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에서 얼마만큼 피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신식의 노래를 하느냐? 요즘은 이런 노래를 한다. 옛날에 나온 찬송가를 옛날 일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첫 단추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알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나 능력이 치유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고 그러면서 삶이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금방 그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문제 없을 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신앙관입니다.

당연히 문제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물과 환경을 보는 관점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구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신뢰

하는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종교적인 음아(吟哦-음영)로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시간, 두 시간 비어서 여기 왔다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점수 주실 것 같습니까? 잘 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석하므로 복받으시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줄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더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그분 자신을 구하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하나님 그분을 구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하러 나오되 우리는 경배를 통해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그분을 볼 때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배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직접화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서 음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종종 살펴봅니다. 살펴본지 벌써 1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오신분들도 많고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또 찬양과 경배를 살펴볼 것입니다.

12차 집회도 예배 회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함이 더 자라나게 되는데 여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든 말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여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핵심은? 한 부분은 주여 내가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윗이 드렸던 시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나? 여러분 요즘 로또 복권이 유행인데 제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사지마세요. 200억원이 당첨됐다고 해보세요. 로또해서 신문을 봤는데 여러분이 당첨됐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칠 것입니다. 기뻐서 표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요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4대독자고, 결혼한지 10년이 되었는데 애가 없어서 부모님께서 맨날 눈치를 줍니다. 애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왔는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아들을 인하여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이 찬양이 뭐냐 하면 “주여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어떤 찬양을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중심에서부터 “주님, 저희 삶의 기쁨의 요인은 주님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사업이 잘되는 것도, 자식들 잘되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진정한 기쁨의 요인은 주님이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이 찬양하지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기쁘기 보다 친구가 기쁘고, 돈이 기쁘고,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 기뻐함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나뉜진 우상숭배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저로 하여금 주님이 기쁨이 근원이 되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포도나무 교회 온 성도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여기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되 여러분이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 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하나님이 저의 기쁨의 요인입니다. 주여, 제가 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쁨의 유일한 기쁨의 요인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기쁨의 유일한 기쁨이 아니면, 기쁨은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기쁨은 못 누리야 되느냐? 이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모든 기쁨이 주님을 기뻐하는 그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진정한 요인인 그 삶 가운데서 여기에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뿔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놀라웁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밴드가 놀라웁고, 찬양팀 놀랍고, 우리들이 큰소리로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더 많이 돈 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목적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관심있는 것을 세상에서 더 좋은 집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내 문제해결을 받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해서 문제 해결해 볼까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아무리 해본들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우리의 목소리 피꼬리 같은 것을 듣고 싶어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줄 아세요?

그러면 천사들이 훨씬더 잘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과 경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부양시켜 주는데 우리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찬양과 경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하나님 그분에게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과 경배입니다.

마지막으로 PLO의 삶입니다.

P(Pray) L(Listen) O(Obey)입니다.

Pray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살펴본대로 주님 앞에서 기다리며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을 알기에 하나님의 앞에 기다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Listen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Obey는 순종하는 것, 이 삶이 우리의 패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을 전도한 아나니아처럼 주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주와 교제하는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오다가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 기다리고 있다고, 그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는 모습을 그가 보고 있다고 가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가 누구인줄 알았습니다. 다 잡히면 죽음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그 당시 이해로는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그는 나의 택한 그릇” 이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서 사울을 위해 기도를 해주었고, 그렇게 해서 사울이 치유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가 나중에 사도 중에 사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의증과 의도를 알기 원하며, 하나님 목적을 알기 원하여, 주 앞에 기다리는 중에, 주님과 의증과 의도를 알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알게 되었을 때, 내 삶을 조종하고, 내 삶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행해 오신 일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리시겠지요.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위해서, 때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통해서, 전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방문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이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끈 달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부르심,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았을 때,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조종하여 댓가를 지불하므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계속 되면서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대한 중요한 요소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아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가 더욱더 옛날보다 정식적인 질환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질환이 많지만 어른들도 질환이 많습니다. 요즘 정신병원에 우울증 환자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수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주님을 알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해결책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은밀한 사귄의 역사를 갖으며, 찬양과 경배를 조합해 드리며, PLO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주님의 길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자신의 삶을 다해 동행하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므로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